

문재인 “모든 역사가 대한민국” 박정희 묘역 참배

야당 지도부 사상 처음... 일부 최고위원 불참 “화합 의지” vs “자존심 무너뜨려” 찬반양론

문 “증세없는 복지는 거짓”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당내 계파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 대표는 당선 후 첫날인 9일 공식 행보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 논란을 일으켰다.

문 대표가 국론 통합 행보를 한다는 측면에서 야당 지도부 사상 처음으로 시도한 보수진영의 두 전 대통령 묘역 참배가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부른 것이다.

문 대표는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먼저 참배한 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둘러 본 후, 분향하고 묵념했다.

문 대표의 이·박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는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 김성곤·윤후덕·송호창 의원만 함께했다. 문 대표의 현충원 방문에는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해 현역 의원으로 50여명이 동행했다. 최고위원 5명 중에선 주승용·정청래·오영식 의원이 참석해 현충원에 참배했으며, 전병헌 유승희 최고위원은 아예 불참했다.

문 대표는 참배에 앞서 “모든 역사가 대한민국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꿈꿉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문 대표는 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이(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차이는 결국 역사가 해결해주리라 생각하지만 묘역 참배 여부를 둘러싸고 계속 이런 갈등을 겪는 것은 국민 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문 대표는 “국론 분열을 끝내겠다”는 의지로 참배 행보를 시도했지만 일부에서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다소 빛이 바랬다.

현충원 참배 후 열린 문 대표 체제의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희 최고위원은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행보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문 대표를 겨냥, “국민 화합 차원에서 대선국면에 필요한 행보는 천천히 해도 된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앞서 “민주주의의 말살, 대선 부정을 저지른 정권에서 사과와 반성이 없는데 또 하나의 박근혜라 할 수 있는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대선을 준비하는 문 대표로서 참배할 수 있지만 첫 일정으로 잡는 건 당원 자존심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중도파인 주승용 최고위원은 “모든 것을 화해하고 국론 분열보다는 국론을 통합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 대표가 전당대회 과

정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던 것이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문 대표를 옹호했다. 이상민 의원은 “포용과 화합으로 나아가겠다는 매우 진전된 행보”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처럼 묘역 참배 문제를 두고 분열상이 노출되자 ‘문재인호’가 시작부터 해묵은 노선 갈등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잘 조율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편 문 대표는 “증세없는 복지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면서 “빚수에 맞서 서민 지갑을 지키고, 복지 줄이기를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선언하면서 “복지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까지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등 부자감세 철화를 뚫고 나갈 것”이라며 “공정한 조세 체계를 다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대통령 “정치권 증세론, 국민 배신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여야 정치권이 증세론을 공론화하는 것에 대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증세복지론”에 쐐기를 박았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된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나, 그것이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한 것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문제와, 그것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뭉개 되는 것 같아도 링커(수액)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정희 묘역 참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고(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계제로’ 이완구 청문회

여 “의혹 해명듣자” 야 “자진 사퇴해야”

‘언론외압’과 관련해선 여당내에서도 당혹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여야 공방이 격렬해지면서 총리 인준 여부가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신임 당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여야 강경모드로 돌아선 것도 청문회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총리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은 입증된 만큼 청문회를 열어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충분히 들어보자는 입장이다. 병역, 대학교수 채용,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도 크게 문제삼을 소지는 없다며 방어에 주력하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잘못된 부분은 진술하게 사과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으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언론 외압’ 의혹 만큼은 새누리당에서도 적잖이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 후보자의 부정적 언론관을 고리로 ‘문재인호’ 새정치연합이 청문회 통과 저지에 나설 경우 당은 물론 박근혜 정부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자진 사퇴 요구를 이어가는 한편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승중 검증”으로 인준안 부결까지도 노리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표가 전날 정당대회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가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부정적 태도를 취한 것이 청문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고위 관계자는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문제들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진 사퇴하지 않고 청문회에 나선다고 해도 대중 넘어가려 하겠지만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 원내부대표단 이상일 의원 등 인선

주영순 의원 포함 정책위의장단 9명도

새누리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부대표로 이상일(비례) 의원, 정책위의장에 주영순(비례) 의원 등 선인하는 등 신임 원내부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을 일괄 추진했다.



이상일 의원 주영순 의원

원내수석부대표에는 경남 밀양·창녕이 지역구인 재선의 조해진 의원이 임명됐고, 원내부대표로는 이 의원 외에 김도읍(부산 북·강서울) 민병주(비례) 박성호(경남 창원 의창) 심학봉(경북 구미) 유의동(경기 평택) 이예리(비례) 이이재(강원 동해·삼척) 이재영(비례) 홍철호(경기 김포) 의원이 선임됐다.

정책위 부의장단에는 주 의원 외에 김세연(부산 금정) 김용태(서울 양천) 노철대(경기 광주) 안효대(경남 울산 동) 이명수(충남 아산) 이학제(인천 서·강화) 조원진(대구 달서) 황영철(강원 홍천·횡성) 등 재선의원 9명의 명단이 포함됐다.

원내대변인으로 김명연(경기 안산 단원) 민현주(비례) 이종훈(경기 성남 분당) 의원이 지명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재인 대표 비서실장에 ‘비노계’ 김현미 의원

대변인에 유은혜 의원



김현미 의원 유은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대표 비서실장에 재선의 김현미 의원, 대변인에 초선의 유은혜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문 대표 취임 하루 만에 이뤄진 이번 당직 인선은 김현미, 유은혜 의원 모두 비(非) 친노 성향이라는 점에서 계파를 초월해 인재를 고루 등용하겠다는 당평 의지가 반영된 것인 평가다.

김 의원은 80년대 여성 운동권을 대표하는 평민당 출신 인사로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을 지냈다. 유 의원은 고

(故) 김근태 전 의장의 보좌관 출신으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이인영 후보를 도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15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학부
▶정시 추가모집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4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11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악학과	4
	실용음악학과	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없음),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② 원서접수 : 2015. 2. 16(월) ~ 22(일)
③ 전형일 : 2015. 2. 23(월)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① 원서접수 : 2015. 2. 9(월) ~ 23(월)
②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
		목회학과(D.Min.)	○
	석사	신학과(Th.M.)	○
		신학연구학과(M.A.T.)	○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교육학과(M.Ed.)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신학대학원 편입

① 원서접수 : 2015. 2. 9(월) ~ 23(일)
② 지원자격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4학기 이상 수료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 입학문의 ▶ 대학원 062) 605-1115 학부 062)605-1114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편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